

# 전주대 총장배 태권도대회 신규 전국규모대회로 승인

대한체육회 정식 승인대회 인준 노력 '결실'... "관람형 대회로 차별화 노력할 것"

전주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가 1년 만에 대한태권도협회(KTA)에서 인정하는 신규 전국규모대회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 태권도학과는 총장배 대회를 승인받기 위해 2022 전주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 비승인대회를 개최, 선수 약 2,022명이 출전해 대한체육회 정식 승인대회로 인준받기 위해 노력했다. 이숙경 경기지도학과장은 "전북형 태권도대회에 대한 전북태권도협회와 학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빠르게 승인됐고, 특히 졸업 동문과 재학생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람형 태권도 대회로 차별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 경기지도학과 태권도전공은 태권도창작공연에 특화된 전북



전주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가 1년 만에 대한태권도협회(KTA)에서 인정하는 신규 전국규모대회로 승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22 전주대 총장배 태권도 대회.

을 대표하는 학과다. 특히 지난해에는 태권도 공연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4번이나 수상했다. /정은성 기자

## 태권도 우수선수들, 무주서 동계훈련 '주목'

무주국민체육센터서 '스토브리그' 대비  
오늘까지 훈련 열중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전국의 태권도 우수선수단이 모여 수준 높은 태권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전국태권도 우수선수초청 스토브리그 훈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 동안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태권도 성지 청정 무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지훈련장을 찾은 황인홍 무주군수는 참가선수단을 찾아 격려하며 "이번 훈련에 쏟은 맘과 열정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권도 유망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무주 국제태권도사범학교 설립을 통해 태권도 성지 무주를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다졌다. 무주군 태권도 협회(회장 이도우)는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전국태권도 우수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전국의 태권도 우수선수단이 모여 수준 높은 태권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일 훈련장을 찾은 황인홍 무주군수와 참가 선수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선수 초청 스토브리그에 참여하는 선수단이 무주에서 동계훈련을 하게 되어 무주태권도선수단에게는 선진기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참가선수단이 지역 내 외식업소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500여명(무주고 등 20개팀)의 전국 각급 학교태권도 선수단과 운영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제9회 무주 반딧불배 스키·스노보드대회 성료

전국 아마추어 스키어들과 스노보더들이 새하얀 설원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제9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가 지난달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간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스키협회가 주관, 전북도·무주군·무주덕유산리조트·전라북도체육회가 후원했다.

이번 대회는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으로 나눠 치러졌다.

만선하우스 1층 구 지정환 피자에서 현장 접수가 이뤄졌고, 시상식은 만선하우스 2층 카페테리아에서 열렸다.

접수 결과 올해는 스노보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수로 참가했다.

참가한 선수들은 설원이라는 무대 위에서 훌륭한 솜씨를 뽐냈다.

이번 대회 일반부 스키종목에서 남자부 김별·여자부 오혜정씨, 일반부 스노보드종목에서 남자부 김준섭·여자부 김선주씨가 1위를 차지했다.

일반부 스키종목 2위는 여자부 강태희씨가 선정됐다.

일반부 스노보드 종목 2위는 남자부 김별·여자부 노현진씨가 차지했으며, 일반부 스노보드종목 3위는 남자부 박우진·여자부 임초아씨가 차지했다.

일반부 참가자들 중 김별씨는 2개 종목에 모두 출전해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중고등부 스키종목에서는 남자부 심승민군·여자부 김초연양이 1위를 차지했다.

초등부 스키종목에서는 남자부 천지우·김지완군이 각각 1~2위를 차지했으며, 여자부 조하윤양과 조



무주 반딧불배 스키·스노보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 ①남자 일반부 스키 1위 김별, ②여자 일반부 스키 1위 오혜정씨, ③남자 일반부 스노보드 1위 김준섭씨, ④여자 일반부 스노보드 1~2위를 각각 차지한 김선주(사진 오른쪽)씨와 노현진씨.

스키 - 男 일반 1위 김별 · 女 일반 1위 오혜정씨

스노보드 - 男 일반 1위 김준섭 · 女 일반 1위 김선주씨

연서양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한편 무주 반딧불배 스키·스노보드 대회는 전국 아마추어 스키어

들과 스노보더들을 중심으로 동계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해 마다 열리고 있다. /김재훈 기자

## 태권도진흥재단, 중·고교 태권도 수업 지도사범 모집

8일까지 신청접수

태권도진흥재단이 매년 중·고등학교를 선정, 태권도 사범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중·고등학교 태권도 수업 지원 사업(이하 사업)'에 함께 할 지도사범 모집이 시작됐다.

태권도 수업을 통해 자라는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키고자 진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올해 신규 26개교를 포함 33개교가 지원해, 최종 18개교를 선정할 바 있으며



이번 모집된 사범을 선정된 학교에 파견하게 된다.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우수학교인 서울 경희여자중학교 등 4개 학교 및

우수 사범 학교를 포함 총 18명의 사범 중 새롭게 13명의 사범을 공개모집 선발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태권도를 학교 교육 체계로 한발 더 접근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우리 재단과 함께 태권도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훌륭한 사범들이 올해도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